

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한 어깨 통증 환자에 대한 단면조사 결과

대한건주관절학회 기능평가위원회

이화의대

신 상 진

목 적

정형외과 외래에 어깨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원인 질환을 분석하고, 통증 양상, 치료 형태 및 결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86명의 대한건주관절학회 회원이 근무하는 76개 의료 기관에서 1주일간 단면조사를 시행하였다.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총 4,079명에 대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. 환자가 작성하는 설문 내용은 전반적인 통증에 관련된 13개 항목의 설문과, 어깨부위 통증 및 치료에 관련된 5개 항목이었으며, 의료진은 환자의 질환과 기능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후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.

결 과

외래를 방문한 어깨 통증 환자의 가장 많은 질환은 회전근 개 질환(55%) 이었으며 동결견(8.8%), 골절(8.7%), 불안정성 및 SLAP 병변(8.3%)순이었다. 회전근 개 질환 내에서는 회전근 개 파열이 가장 많았으며 회전근 건염 및 충돌 증후군 순의 빈도를 나타내었다. 어깨 통증 이환 기간은 내원 환자의 33%가 1년 이상이었으며 59%는 항상 통증을 느끼며, 56%의 환자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VAS로 측정된 통증 정도는 평균 4.4정도였으며 질환에 따른 통증 강도의 차이는 없었다. 통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 정도는 환자의 12%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정도였으며 48%는 가끔 깨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. 환자의 약 26%는 어깨부위 통증으로 인한 운동범위 감소를 나타내었다. 환자와 의사 간의 통증 정도에 대한 일치도에서 전체적인 평균 VAS 점수는 환자 평가(4.4)와 의사 평가(4.3)가 유사하였으나, 점수 일치도는 경미한 정도($\kappa=0.319$)로 나타났다. 한국 건관절 점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어깨 기능 점수는 골절 환자들이 가장 낮았으며(14.7), 회전근 개 질환 환자들이 가장 높았다(19.5). 조사 대상의 44.2%가 어깨 수술 및 주사 요법을 경험한 바 있으며 수술 및 주사 등과 같은 침습적 치료 후 통증은 치료 전보다 평균 2.6 감소하였다.

결 론

어깨 통증 환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어깨 통증 환자들의 원인 질환 종류, 통증 정도, 기능 및 치료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통증이 생활 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. 통증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외래에서 적극적인 통증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